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 64.5% 달성

익산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발굴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올해 1/4분기 일자리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자리창출 목표 1만2,288명 대비 64.5%(인 7,924명)에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일자리 추진실적 점검 및 청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관련 35개 부서의 129개 사업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이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시작됐고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취업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단기 인턴 사업'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청년들이 사전에 탐방할 수 있는 '청년 취업 GO GO 기업탐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소라공원 청년지원 민간임대주택 ▲보건진료소 안전도우미 지원 사업 등 청년 지원 및 일자리 관련 26개 신규 사업이 보고되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청년희망 네트워크 분과장들도 참석하여 발굴된 신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을 시장은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익산시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익산시가 10일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

성을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학교가 정세현 전 총장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원광대, 정세현 전 총장 특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융합 교양대학에서 주관하는 '통일공부와 평화여행' 프로그램 제3차 강연이 지난 9일 저녁 교내 프라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남북이 정상회담 의의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주제로 진행된 3차 강연은 정세현(전 원광대 총장)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초청됐으며,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봉 원광대 교수와 정세현 전 총장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만주에서 출생한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따라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내려온 일화 등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 같다는 정세현 이사장은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이재봉 교수의 질문에 "남북한 통일은 가성비가 매

우 높은 사업"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계산된 통일비용 정보 활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가 지원하는 '통일공부와 평화여행' 프로그램은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를 시작으로, 4월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4월 9일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에 이어 4월 16일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 4월 23일 명진스님·평화의 길 이사장, 4월 30일 진천구 북한 취재기자 등의 강연이 펼쳐지며, 퀴즈대회 '통일 골든벨'과 함께 수강자 중 우수 출석자 40명을 선정해 1박 2일 동안 판문점과 대성동마을, 백령도와 대청도 등 평화여행이 제공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범정부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범정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과 10일 중앙부처를 연일 방문하고 오는 17일 재차 중앙부처를 방문할 예정으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강 시장의 이와 같은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부처 예산 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부처 단계부터 신규사업 반영과 정부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다.

중앙부처 방문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 ▲어정도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사업 60억원 ▲군산항 신규

지정항로 준설사업 26억원 ▲항만역사관 건립사업 5억원을 건의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으로 ▲해상 풍력전문연구센터 구축 80억원 ▲협동공방 운영을 위한 스마트 JV센터 건립 100억원 ▲대형 풍력시스템 시험 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 18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

30억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30억원 ▲태양광 발전성능 장기 모니터링 인프라 시범구축 30억원 등을 건의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갖춰 부처 방문활동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상습 침수지 방문 현장 행정 강화

정현을 익산시장이 잠마철을 앞두고 상습 침수지역을 찾아 수초제거와 준설작업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10일 상습 침수지역인 만석동 만석마을을 방문해 차상철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과 익산시의회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

설위원,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예방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만석마을은 잦은 침수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 수초제거와 준설 공사 등 침수예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에는 4억 3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 사업비

유지보수예산 6억 원을 확보했고 수초제거 및 준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3억 6000만원을 투입했다.

정 시장은 "사업을 완료해 영농불편 해소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비 재배 신기술 보급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는 생선비 절감을 위한 비 소식재배 신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비 소식재배는 육묘 상자 당 범시 300g정도를 밀과하여 일반이앙기가 아닌 전용이앙기를 사용해 포기당 3~4분씩 50주/3.3㎡를 심는 방식으로 3.3㎡에 포기당 7~12본을 70~80주 심는 일반이앙에 비해 작게 심고 이앙 후 왕성한 새끼치기를 유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식재배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신동진비, 보란찰비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5년에 걸쳐 3,000ha를 목표로 소식재배 이앙기를 보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원광대학교병원 금연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운영 중인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가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8 사업평가결과 우수 센터로 선정 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북금연지원센터는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성과 대회'에서 2018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최종 평가 결과 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 한 것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전북금연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6월 26일 개소

이후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중 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4년 연속(2015년-2018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전북금연지원센터는 1기 사업(2015년-2017년)에 이어 2기 사업(2018년-2020년)을 운영하였다.

전북도민의 흡연을 감소 및 금연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연사각지대 대상자(위기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30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임원환자)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금연을 하기 힘든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집중치료형 금연



캠포도 운영하고 있다. 오경재 센터장은 "금연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사업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본부, 수탁기업협의회 간담회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군산발전본부(본부장 황해석)는 수탁기업협의회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탁기업협의회란 개별 기업 간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부발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군산조선기자재 협력기업 조사모회, 반영회 등

6개 협의회에 27개 회사로 구성됐다.

황해석 본부장은 "앞으로 협의회 회원사간 테크노 멘토제, 발전용수 지원, 정비직업업체 등록 지원, 국산화 개발품 해외발전소 사례전파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평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